

접대 매너 <골프>

- 골프 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돈을 세는 것은 뺑뺑-

골프는 접대 장소로 적합하나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여기서는 골프 접대의 매너에 대해 소개한다.

□ 지켜야 할 포인트

1. 상대방이 골프를 즐길 수 있게 칠 때마다 큰 소리로 「ナイスショット」라고 응원 해준다.
2. 자신은 적당히 못 치는 척하자.
3. 캐디에게 접대라고 미리 말해두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
4. 상대방 티샷시, 티 박스에 올라가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자.
5. 연습 스윙을 1번 이상 하지 말자.
(윗사람과 경기 시는 가능한 연습 스윙을 하지 말 것)
6. 타구가 잘 안 맞았을 경우 소리 지르는 행위는 하지 말자.
7. 캐디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8. 공을 분실했을 경우, 너무 오래 동안 찾지 말자.
(5분 이상 지체하면 안됨)

9. 공을 찾으러 가서 못 찾는 경우 슬쩍 공을 주머니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일명, 알까기)
10. 페워웨이에서 라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을 슬쩍 건드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11. 벙커샷을 한 후 뒷정리를 잘 하자.
12. 그린에서 퍼팅시 4면을 모두 관찰하여 자연 플레이를 하는 것은 피하자.
13. 그린에서 상대방이 퍼팅시, 퍼팅라인에 서 있거나 떠들지 말자.
14. 운동 경기 중에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고 운동 후 식사시간에 간단히 요점만 간접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골프장에 있는 그 지방 특산물을 선물로 주면, 접대 받는 고객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있다.